조선시대 여성의 감정노동과 서사적 미러링을 통한 '이비 신화'의 문제 공유*

: 「옥환기봉」과 「한조삼성기봉」을 중심으로

김수연**

차례

1. 들어가며: 조선시대 '여성'의 노동에 대한 문제 제기
2. 부도(婦道)의 이중성과 '이비(二妃) 신화'에 얽힌 감정노동 문제의 공론화, 「옥환기봉」
3. 서사적 미러링을 통한 '여성-자기서사'의 공유 시도, 「한조삼성기봉」
4. 나가며: 규범에서 노동으로, 시선 전환의 의미

〈국문초록〉

이 글은 아내와 여성에게 부여된 직무를 규범으로 바라보던 기존 시각을 벗어나, 노동 이행으로 보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은 여성의 직무를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로 바라보게 하고, 그것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논의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는 '이비 신화'에 복무하는 것이 당연직이 아닌 선택직이라는 점, 또한 그것이 개인 차원에서 감당해야 하는 의무의 영역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협업의 영역임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작업이다. 전통적 여성과 아내의 직무를 바라보는 시선은 오늘날 젠더화된 역할 고정 문제와 연결되기에 개인의 자질이 아닌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아내와 여성의 직무에 침윤된 감정노동 중 자기감의 확대가 차단된 표면행동에 주목하여 노동과 관련한 여

* 이 논문은 한국여성철학회 제6회 여성주의 인문학 연합 학술대회[3개 학회 공동개최], 2016.4, 11-26 (16 pages)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성의 ‘현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상적 전망과 현실적 실천은 새로운 자기서사를 구축하는 두 날개이다. 소설적 상상력은 실존했던 익명 여성의 개인적 경험과 여성 집단의 사회적 역사가 결합된 것이다. 대안적 상상과 그것의 용기 있는 발화는 삶의 질을 바꾸는 변혁의 기본 조건이다. 이 글이 여성을 통제 대상화했던 조선시대에 여성들이 제안했던 소설적 상상력을 주목한 것도 이 때문이다. 논의 진행 과정에서 서사기법으로서의 ‘미러링’과 사회학의 ‘감정노동’, 자기심리학의 ‘자기감’과 문학치료의 ‘자기서사’ 개념을 중요한 성찰도구로 활용하였다.

핵심어 : 감정노동, 서사적 미러링, 이비 신화, 「옥환기봉」, 「한조삼성기봉」

1. 들어가며: 조선시대 ‘여성’의 노동에 대한 문제 제기

조선시대 여성노동은 주로 육체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여성 노동은 대개 가사에 집중되었기에 여성의 노동과 역할은 아내나 가모라는 지위와 관련이 깊다. 기존 연구는 아내/가모가 ‘집안을 일으키기’에 기여한 부분을 확인하고 그것의 의미에 주목하였다. 김경미는 18-19세기 양반 여성을 중심으로, 그녀들의 가사노동이 가족 구성원을 위한 활동일 뿐 아니라 상품의 생산 노동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여성들이 별도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던 정황도 포착했다.[1] 강혜선도 당시 현실은 경제활동을 드러내는 것에 비판적이었지만, 여성 대상 실기에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드러내 찬양하는 내용이 적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2] 조선후기로 오면서 집안 남성들이 공식문자인 한문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기

1) 김경미, 「조선후기 여성의 노동과 경제활동: 18-19세기 양반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8권 4호, 2012, 85~117쪽.
2) 강혜선, 「조선후기 사족 여성의 경제활동과 문학적 형상화」,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4, 189~219쪽.

린 글들이 증가한다. 이런 기록들은 아내의 노동과 경제활동이 집안의 살림을 맡은 여성의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역할'이라고 여기게 만든다. 공식적 기림을 통해 여성의 당연직이 된 노동과 경제 활동은 '아내 또는 가모'라는 것이 집안 내 지위를 가리키는 이름일 뿐 아니라, 집안 구성원을 위해 기꺼이 감당해야 하는 '직역이자 직무'의 이름으로 인지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여성이나 아내의 노동과 경제활동에 대한 기림은 노동의 완성도를 통해 여성의 인격적 자질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여성이 해야 할 일과 노동을 '여공'이라 불렀는데, '여공'의 숙련됨이 여성이 갖추어야 할 부덕(婦德)을 가늠하는 지표로 사용된 것이다. 『예기』에 나오는 "(제사 때) 화려한 장식과 수놓인 옷감이 아름다워도 거친 베를 (동이) 위에 놓는 것은 여공의 시초를 돌아보려는 것이다"[3]라는 기록은 원래 근본을 귀하게 여기자는 의미였으나, 후대에는 '여공'을 '예'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데 참여하게 된다. 더하여 『내훈』 등에서 '길쌈을 하고 양잠을 하며 실을 뽑아 비단 등을 짜는 일'을 여성이 갖추어야 할 교양으로 강조하면서 조선시대 여인은 집안의 의복을 마련하고 가내의 의식주와 관련한 일의 숙련을 덕성의 함양 과정으로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가부장 사회가 '여공'을 단순한 노동이 아닌 예와 교양의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규범화한 것은, 여성의 인정욕망을 해소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욕망을 억제하기 위한 방편이지만, 여성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방식으로 기능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4]

그런데 여성의 노동과 활동은 단순히 육체적 요소로만 환원할 수 없는

3) 『禮記』 제11 「郊特生」, "黼黻文繡之美, 疏布之尙, 反女功之始也."

4) 혼인한 여성이 수행하는 가사노동 가운데 핵심은 "봉제사, 접빈객"이었는데, "봉제사 접빈객에 미진한 바가 없었다"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공식적으로 드러내 기리는 최고의 찬사였다. 이남규, 『수당집』 제8권 「제문(祭文)」 「아내 정부인(貞夫人) 채씨(蔡氏)를 제사하는 글」, 고전번역원.

성격의 것이다. 최기숙은 18세기 여성 생애사 기록을 대상으로, 집안의 가난을 극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담당했던 실질적 주체가 여성이었음과, 그녀들의 희생으로 남편과 자식이 청렴과 개결을 유지할 수 있었음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극빈(克貧)과 치빈(治貧)을 위한 여성의 노동이 그녀들의 감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드러내었다.[5] 남성들이 공식적 언어로 여성이 완벽하게 혹은 티나지 않게 가사노동을 수행했다고 기림으로써, 그녀들이 빈곤의 괴로움을 표현할 수 없도록 하는 감성 통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최기숙이 지적한 '헌신적 여성노동의 규범화 과정과 그로 인한 감성통제'는 여성의 가사활동을 다룰 때 육체노동뿐 아니라 정신노동의 측면을 고려해야한다는 타당성을 제공한다. 여성이 헌신적으로 가족을 돌보는 노동/활동에는 "감정노동의 차원이 침윤"되어 있기 때문이다.[6]

인간의 노동행위와 감정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여러 학문분과에서 관심을 가졌으나, '감정노동'이 학계의 공식 용어로 사용된 것은 1983년 미국의 사회학자 앨리 러셀 혹실드(Arlie Russell Hochschild)에 의해서이다.[7] 그는 그동안 간과했던 '감정표현'을 중요한 노동요소의 하나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여기서 주목한 노동으로서의 감정표현이란 '조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요구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8] 그렇다면 감정노동의 성립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조

5) 최기숙, 「18세기 여성의 생애사 기록을 통해 본 빈곤의 감성 통제와 여성의 삶」, 『여성학연구』 제32호, 2014, 7~42쪽.

6) 이정옥은 '헌신과 돌봄의 성격을 지닌 "가사서비스에는 감정노동의 차원이 침윤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정옥, 「돌봄노동의 사회화와 감정노동」, 『사회과학논총』 제11집, 2012, 92쪽.

7) Hochschild, A. R. (1983/2003/2012), *The Managed Hear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8) 혹실드는 "감정노동은 조직으로부터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고객이 원하는 감정을 표현할 것을 요구받아, 고객과 대면할 때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조직이 정한 규범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 한다"고 했다. 앨리 러셀 혹실드, 이가람 역, 『감정노동』, 이매진, 2009, 17~21쪽.

직이 요구하고 제시하는 '규범적 감정(표현)'이 존재해야 하며, 둘째 규범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개인의 감정에 반하는 행동이어야 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는 조선후기 여성이 가사노동과 경제활동 과정에서 가난의 고통을 표현할 수 없도록 강요하는 조직의 분위기에 주목하였다.[9] '표현하지 않음'을 강요하는 것은 내면과 다른 '표현'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 실상은 고통스러우나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고통스럽지 않은 것처럼 '표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표현과 반-표현'을 규범화하여 강요하는 것이 조선 사회의 전체적 분위기였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여성의 가사활동은 감정노동 차원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전통사회 한국여성이 담당한 노동의 성격은 어떠하며, 감정노동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은 띠는가? 그녀들에게 제시되고 요구된 감정노동규범은 무엇이고, 그녀들은 사회적 감정노동 요구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했는가? 마지막으로, 가부장적 억압기제나 폭력적 규범으로 이야기하던 여성의 정서적 희생을 감정노동으로 규정하고 바라보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이 글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며 진행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글은 전통적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육체활동보다 '이념적 감정'을 표현하도록 강요하는 조직의 요구에 응하는 감정노동에서 더 크게 '자기감'을 상실했으며, 남성의 한자/공식문자가 의도한 감정노동의 강요를 여성의 문자인 한글/비공식 문자로 '언어화'함으로써 대응하였음을 밝히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국문소설이 여성의 비공식적 커뮤니티로 역할하며 여성의 발화를 지지하는 연대를 형성하고, 여성이 자신을 주어진 삶의 순응자가 아닌 선택적 삶의 기획자로 상상함으로써 자기감을 높이며, 무엇보다 남성과 조직에 여성의 '자기서사'를 공유하고 자신들의 공감적 연대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는 통로로 기능하였음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서사기법으로서의 '미러링'과 사회학의 '감정노동', 자기심리학의 '자기감'과 문학치료의 '자기서사' 개념은 이 글의 논지 전개에 좋은 성찰

9) 최기숙, 앞의 글.

도구가 되어줄 것이다. 주요 텍스트는 국문장편소설 가운데 아내나 가모의 노동 문제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발화를 속편으로 작품화 한 「옥환기봉」과 「한조삼성기봉」 연작을 대상으로 하였다.

2. 부도(婦道)의 이중성과 '이비(二妃) 신화'에 얽힌 감정노동 문제의 공론화, 「옥환기봉」

조선시대 비공식문자인 한글로 쓰인 국문장편소설은 조선후기에 많은 여성들이 읽고 공유했던 문화 미디어이다. 주된 콘텐츠는 가문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건, 사고와 구성원 사이의 갈등과 화해로 구성된다. 당시 여성들은 국문장편소설을 통해 특정 사건유형과 해결규범을 공유하였다. 향유자 가운데는 스스로 작가가 되어, 여성에게 민감한 갈등과 사건을 만들고 해결안을 제시하는 이도 있었다. 기록에 의하면 「완월회맹연」 180권의 작가는 완산 이씨라는 여성인데, 이름을 얻기 위해서 소설을 썼다고 했다.[10] 소설로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독자들이 공감할 만한 사건과 인정할 만한 해결방향을 제시해야 했을 것이다. 국문소설이 여성들의 '담론의 공유처이자 교환처'로 기능하는 것을 남성들도 인지했던 듯하다. 남성 작가들도 자신들이 제공하고자 하는 소위 '교훈적이고 이념적 내용'을 소설형식에 담아 한글로 쓰거나, 한문으로 쓴 것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가내 여인들에게 읽히기도 하였기 때문이다.[11] 이로 보면 조선조 국문장편소설은 여성들이 소일하는 데 쓰이는 오락물이면서 동시에 사회가 요구하는 교양을 습득하는 문화물이자, 때로는 여성과 관련한 문제적 상황이나 의식이 소통되고 공유되는 담론 공간의 성격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10) 조재삼의 『송남잡지』에 "완월은 안겸제의 어머니가 지은 것인데, 궁중에 흘려보내 명성과 영예를 넓히고자 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11) 임형택, 「17세기 규방소설의 성립과 「창선감의록」」, 『동방학지』 57, 1998, 103~176쪽.

있다.

국문장편소설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지만 주된 향유층이 여성이라는 점에서는 논란이 거의 없다. 대부분 작품이 집안 내 여성의 임무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는데, 그중에서도 「옥환기봉」은 이 글에서 문제 삼는 '아내'라는 직역과 아내가 해야 할 노동과 활동의 다층성, 그리고 그 안에 침윤된 감정노동의 문제를 비중 있고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많은 연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옥환기봉」은 다른 작품에 비해 부부갈등을 더욱 쟁점화하여 다루었으며, 여성 특히 아내의 비판적이고 저항적인 목소리를 부각시킨 작품이다.[12] 이는 이 작품이 여성과 아내의 역할과 정신노동적 직무의 측면에서 충분한 논의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게 한다.[13]

「옥환기봉」은 후한 광무제와 곽후, 음후의 실제 역사를 소재로 하여 부부갈등과 부녀갈등을 핵심 서사축으로 삼아 창작한 소설이다. 『후한서』 등 역사서에는 광무제가 곽후를 폐하고 음후를 황후로 올린 기록이 간략하

12) 박은정, 「「옥환기봉」 연작 연구」, 영남대 박사논문, 2008; 이승복, 「「옥환기봉」과 역사의 소설화」, 『선청어문』 28, 서울대 국교과, 2000; 「「옥환기봉」의 이본을 통해 본 역사소설 수용의 한 양상」, 『덕성어문학』 10, 덕성여대 국문과, 2000; 「「한조삼성기봉」의 구조와 성격-전편 「옥환기봉」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3, 청관고전문학회, 2001; 「「옥환기봉」 연작의 여성담론과 소설사적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1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옥환기봉」의 역사수용 양상과 그 의미」, 『한국문학논총』 50, 한국문학회, 2008; 「「옥환기봉」의 인물형상과 작가의식」, 『고전문학과 교육』 1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8; 임치균, 「「옥환기봉」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18, 한국사상문화학회, 2002; 「18세기 고전소설의 역사수용 일 양상-「옥환기봉」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8, 한국고전연구학회, 2002; 「「한조삼성기봉」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26권 제3호 통권 92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사랑과 갈등에 대한 남성의 시각 뒤집어 보기: 「옥환기봉」과 한조삼성기본을 중심으로」, 『고전여성문학연구』 9, 고전여성문학회, 2004; 「취미삼선록 연구-「옥환기봉」, 「한조삼성기봉」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30, 한국고전문학회, 2006; 구선정, 「「옥환기봉」의 인물 연구-역사인물의 소설적 재현」, 이화여대 박사논문, 2011.

13) 「옥환기봉」의 이본이 22종이나 된다는 점도 이 작품이 당시 많은 독자들에게 공유되었음을 나타낸다. 박은정, 위의 글, 12~18쪽; 구선정, 위의 글 6쪽. 작품인용은 선행연구들이 선본으로 꼽은 규장각본 15권 30책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게 나오는데, 이에 대해 조선시대 사람들은 곽후 폐위와 관련해 생략된 내막을 상상하여 소설로 만든 것이다.[14] 곽후 폐위는 황제가 조강지처인 황후를 내쫓고 빈을 황후로 올린 사건이다. 황실/왕실을 배경으로 황제/왕과 비빈의 일을 소재로 소설을 구성하는 것은 낯설지 않다. 대표적으로 조선조에 많이 읽힌 「사씨남정기」도 숙종과 인현왕후 그리고 장희빈 고사와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된다. 그러나 전후 작품의 차이는 크다. 「사씨남정기」가 전체적으로 허구적 인물을 내세우고 전처-후처를 선-악의 구도 안에 배치한 반면, 「옥환기봉」은 실제 인물을 소설의 주인공으로 삼고 후처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특이점은 정실 아내의 '삶'을 주목하는 방식이다. 전작은 주로 사씨의 규범적 삶을 그렸고, 후자는 곽씨의 구체적 생활을 부각시켰다. 「옥환기봉」의 정실 곽씨는 절대적 악인으로 그려지지 않는데,[15] 이는 그녀가 조강지처의 역할을 충실하고 뛰어나게 이행했기 때문이다.

> ㉠곽소저는 용모가 매우 빼어나고 성품이 총명하고 지혜로웠다. 시어머니를 지극한 효로 섬기고 남편을 정성으로 받들며 시누이를 은애로 대해 화목하였다. 금지옥엽 귀한 딸로 부귀한 가운데 자랐으나 빈천을 능히 잘 견뎠으며, 조금도 교만한 태도가 없고 부도(婦道)를 극진히 차리고 신혼의 마음으로 공경하고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 「갈담」에 나오는 덕과 같았다. …(중략)…곽소저의 재주는 수놓기와 글씨 쓸 줄만 알고, 그 밖의 농가 일은 전혀 모르기에 부인이 깁 짜기를 가르치고, 시누이 백희와 함께 동산에 올라 나물을 뜯으며 광무가 조를 베어 소에 싣고 돌아오면, 솜을 매양 어렵게 여겨 손으로 부비니 고운 손이 콩같이 부르텄다. 곽씨는 시누이와 같이 웃고 (이를) 관계하지 않았는데, 보모 윤씨는 이 모습을 보고 울며 원망하고 탄식하기를 마니 아니하였다.[16]

---

14) 이승복, 임치균이 이에 대해 처음으로 논의하였다.
15) 2권 2책의 조동일본은 소설적 변개가 이루어져, 정실 곽후를 절대적 악인으로 묘사하고 있다. 구선정, 앞의 글.

> ②천금처럼 귀한 낭자의 가사와 거처를 보고 크게 놀라고 있는데, 곽씨가 마침 안에서 나건을 부여잡고 붉은 적거를 신고 동그랗게 거두치고 고개를 숙이고 섬섬옥수로 나물을 다듬다가 모친의 행차를 보고 창황하여 어쩔 줄 모르는 거동이 옥안의 홍광이 취지하니 놀라는 거동과 부끄러워하는 태도가 천연규려하여 더욱 아름다우니, 곽주는 반가워하며 기뻐하나 시비 등은 이 모습을 보고 놀라 눈물을 흘렸다.[17]

곽씨는 미모로나 재예로나 집안으로나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당대 최고의 규수였다. 그런 그녀가 가난한 황실 자손 유수에게 시집을 와서, 홀로 된 시모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기고, 농사꾼 남편을 정성으로 받들며 시누이들까지도 은혜와 사랑으로 대한다. 뿐만 아니라 부귀한 가운데서 자란 티를 전혀 내지 않고, 빈천한 생활을 잘 견디며 '부도'를 극진하게 실천했다. 부도(婦道)는 여성이 행해야 할 규범으로,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덕목의 총칭이다. 곽씨의 부도가 『시경』「갈담」 장에 나오는 덕과 같았다는 서술자의 말은 당대 여성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다. 「갈담」은 문왕 후비의 덕을 기리는 노래라고 해석되기 때문이다.[18] 이러한

---

16) 「옥환기봉」, 규장각본, 권1. "곽쇼져의 용뫼 졀승ᄒᆞ고 셩되 총혜ᄒᆞ여 존고(尊姑)를 지효로 셤기며 가부를 졍셩으로 밧들며 금장 소고(小姑)를 은이로 화목ᄒᆞ여, 쳔금지란으로 부귀의 싱장ᄒᆞ여시나 능히 빈쳔을 감심ᄒᆞ여 조곰도 교만ᄒᆞ든 틱되업고, 부도을 극진니 ᄎᆞ리고 신혼 셩졍의 동동촉촉ᄒᆞᆫ 졍셩이 갈담의 뒤흘 니을지라. … (중략)… 곽소졔의 ᄌᆡ죄 슈놋귀와 글지를 쥴만 알고, 그 밧근 농가의 일은 젼혀 모로ᄂᆞᆫ지라. 부인이 깁ᄊᆞ기를 가르치고, 빅희와 한가지로 동산의 올나 나물을 ᄯᅳ드며 광뮈 조를 뷔여 쇠게 실고 도라오면, 쇼믈 ᄆᆡ양 어려이 역겨 손으로 부뷔니 옥 ᄉᆞᆫ 콩갓치 부릇ᄂᆞᆫ지라. 곽시ᄂᆞᆫ 소고(小姑)와 갓치 웃고 관겨치 아니ᄃᆡ, 보모 윤시니 거동을 보고 울며 원탄ᄒᆞ믈 마지 아냐"

17) 「옥환기봉」, 규장각본, 권2, "쳔금 낭ᄌᆞ의 가ᄉᆞ 거쳐를 보고 ᄃᆡ경ᄒᆞ난 즁의 곽시 마ᄌᆞ 안흐로셔 나건을 븨여 잡고 븕은 젹거를 신코 동코라케 거두치고 고ᄀᆡ를 슉이고 셤셤옥슈로 나물을 ᄭᆡ다가 모친의 힝거를 보고 창황ᄒᆞ여 아모리ᄒᆞᆯ줄 모로ᄂᆞᆫ 거동이 옥안의 홍광이 취지ᄒᆞ니 놀나ᄂᆞᆫ 거동과 브그리ᄂᆞᆫ ᄐᆡ되 쳔연 규려ᄒᆞ여 더욱 아름다오니, 곽쥐ᄂᆞᆫ 반기며 두굿기리, 시비 등은 ᄎᆞ경을 보고 놀나 눈물을 흘이니,"

18) 『시경』「國風」「周南」, "此詩, 后妃所自作故, 無贊美之詞. 然, 於此, 可以見其已貴而能勤, 已富而能儉, 已長而敬不弛於師傅, 已嫁而孝不衰於父母, 是皆德之厚而人所

찬사는 남성들이 공적 문자로 아내와 가모를 기렸던 실기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부도(婦道)'는 여성의 일생을 꿰는 중심 서사틀이다. 대개의 여성이 '자신'이 아닌 '아내와 어머니'로 살고, 그녀들의 인생이 주로 남편과 아들에 의해 남겨지던 시대에는 '부도'의 궤적을 통해서만 여인의 인생 서사가 기록/기억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도를 훌륭하게 실천한 것으로 공식화되는 여인의 삶은 주류 질서를 지지하는 '증거'의 성격을 띠게 된다. 즉 여성의 노동을 '부도'로 찬상하는 작업들은 결과적으로 여성의 구체적 노동을 포장하여 실상을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옥환기봉」 또한 사회가 인정하는 '부도'를 이야기하면서 시작하지만 그 진행에서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한다. '부도'라는 포장지를 부정하지 않되, 그 안에 들어있는 실상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남성/사회가 강제력/권력을 지닌 공적 언어를 가지고 만든, 여성의 노동에 덧씌워 실체를 희미하게 가리려는 규범에 덥히지 않고, 오히려 자기 언어로 더욱 선명히 드러내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남성들이 말하는 '부도'가 무엇인지 그들도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곽씨가 담당한 가사를 고스란히 드러냄으로써, 그녀의 노동이 추상화되는 것을 지연하고 방지한다. 이러한 지연과 방지는 비슷한 처지의 현실 여성들이 인물의 '자기서사'를 중심으로 결집하게 한다. 수놓기와 글씨 쓰기만 알고 농사일은 전혀 모르던 곽씨가, 시집와서 시모에게 깁 짜기를 배우고 시누이와 산에 올라가 나물을 뜯으며, 남편이 베어 온 조의 껍질 솜을 비벼 터느라 고운 손이 콩처럼 부르트고, 시골 아낙의 모습으로 나물을 다듬다가 친정어머니를 보고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모습은 비슷한 경험을 지닌 여성들에게는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생생한 현장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에 곽씨의 보모가 원망하고 눈물 흘리고, 친정 시비들도 놀라 울었다고 했다. 소설의 목소리는 주류 목소리의 이면과 빈틈, 균열을 드러내는데, 여성 주인공의 붉은 얼굴과 보조 인물의 탄식이 이러한 틈새 목소리를 전달한다. 이것들을 통해 '부도'의

難也. 小序, 以爲后妃之本, 庶幾近之."

실상이 '기림'의 수사가 만들어내는 이미지와는 다르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도'로 포장된 여성의 노동이 강도 높은 육체 활동을 감내하도록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힘듦'을 표현하지 않도록 하는 감정의 통제가 발생하지만, 그것이 항상 여성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거나 여성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육체의 수고를 필요로 하는 노동과 경제활동에는 일정한 대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성이 가사활동을 통해 얻는 대가는 집안 경제에 대한 권리를 지니고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경우에 따라 사적 재산을 축적할 수도 있는 것 등이다.[19] 이것은 집안 내 여성의 위상과 관련이 있다. 여성이 집안을 일구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것, 즉 아내나 가모의 직역을 훌륭하게 감당했다는 것은 그 직역 담당자로서의 능력을 인정받는 행위이며 동시에 그 자리를 굳건히 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여성은 가사활동을 통해 소극적이나마 자신의 인정욕망을 구현할 수 있었다. 더하여 공적 문자로 찬상이 되면 인정의 범위가 집밖으로 확대된다. 소설을 써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했다는 기록에서 확인되듯, 조선시대 여성도 자기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열망을 지니고 있었다. 때문에 고된 노동의 수행과 그것에 수반된 감정 통제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상대적으로 다수에게 열려진 인정 방식이자 통로라는 점에서 일정부분 여성의 삶에 긍정적 기여도 있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조선시대 여성의 노동과 경제활동은 육체적 수고라는 측면만으로 바라보고, 노동의 강도와 여성의 행/불행 감정이 비례한다고 논의하기에는 복잡한 성격을 지닌다. 그것이 가족에 대한 돌봄과 자신에 대한 가치 인정이라는 점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혹실드는 감정노동 행위를 결과 변수와 긍정적 관계에 있는 내면행위와 부정적 관계에 있는 표면행위로 나눌 수 있다고 했다. 내적행위는 요구받은 감정표현 규칙에 일치되

19) 김경미, 앞의 글.

는 방향으로 내적 감정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말하는데, 이런 경우 결과나 성과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것이다.[20]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조선시대 여성의 육체적 활동에 침윤된 감성통제와 감정노동에는 사회적 요구에 자신의 욕망을 결합하여 긍정적 결과로 이어지게 하는 내면행위의 속성이 존재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감정노동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표면행위' 층위이다. 표면행위는 내면 감정은 그대로 둔 채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만을 감정표현규칙에 일치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21]

> ③범부인이 웃으며 칭찬하였다. "부인의 덕은 화평함이 으뜸이니, 며느리가 빙옥 같은 덕이 열녀보다 더함이 있으니, 첩의 모자가 어찌 부족하게 여기겠습니까. 하물며 효행과 예절이 부귀함으로 빈천을 감심하여 첩을 지혜로 섬기고 몸소 베짜기와 채강채미로 부도를 다하니, 아자가 어찌 조강결발을 저버리겠습니까?"[22]

> ④광무가 탄식하며 말했다. "오늘의 빈천 간고와 그대의 지성을 무엇으로 갚으리오?" 곽씨가 대답했다. "첩의 빈천 공궁은 백 년이라도 감심할 것이오. 부귀는 진실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군자가 타일 뜻을 얻어 작첩의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일을 하실까 심려하나니, 오직 부귀한 후 뜻을 고치지 마시고 종신토록 희첩을 갖추지 아니시기를 바랍니다."[23]

---

20) 앨리 러셀 혹실드, 앞의 책, 류태모・위희경・정현우, 「감정노동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감성리더십과 임파워먼트의 조절효과」, 『인적자원관리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2014, 437쪽에서 재인용.

21) 위의 책, 같은 쪽.

22) 「옥환기봉」 권2, "범부인이 쇼이 칭ᄉᆞ왈, 부인지덕은 화평ᄒᆞ미 웃듬이니, ᄌᆞ뷔 빙옥ᄀᆞᆺ흔 덕이 녈녀의 더으미 닛시니, 쳡의 모지 엇지 부죡히 역기리잇고. ᄒᆞ물며 효힝 녜졀이 부귀ᄒᆞ물 빈쳔을 감심ᄒᆞ여 쳡을 지혜로 셤기고 몸소 방젹 직짐의 치강치미를 부도를 다ᄒᆞ니, 아지 엇지 조강결발을 져바리잇고."

23) 「옥환기봉」, 규장각본, 권1, "뮈 탄식 왈, 오날날 빈쳔 간고와 그ᄃᆡ의 지셩을 무어스로 갑흐리오. 곽시 ᄃᆡ왈, 쳡의 빈쳔곤궁은 ᄇᆡᆨ년이라도 감심ᄒᆞᆯ거시오, 부귀ᄂᆞᆫ 진

곽씨의 모친 곽주가 찾아오자, 곽씨의 시어머니 범부인은 곽씨가 열녀보다 더한 덕을 지녔고, 부귀하게 자랐으면서도 티내지 않고 빈천을 견디며, 효행과 예절로 가족을 대하고 베 짜기와 나물 캐기 등도 직접 하고 있음을 들어 칭찬한다. 결론은 곽씨가 '부도'를 지극히 하기에 자신의 아들이 조강지처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인용문 3). 이를 증명하는 것이 보리죽 한 그릇을 부부가 서로 권하며 사양한 후의 대화 장면이다(인용문 4). 광무는 아내 곽씨의 지극정성에 감동하여 그녀의 고생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을 견디며 집안을 돌보는 곽씨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한 것이다. 이에 곽씨는 가난한 농사꾼의 아내로 사는 괴로움은 백 년이라도 달게 견딜 수 있다고 말한다. 백 년의 가난을 달게 견딜 수 있는 것은 그것의 성과가 뚜렷하고, 무엇보다 시모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노동과 경제활동에서의 부도를 완벽하게 실천하는 것은 집안에서 그녀의 자리를 더욱 안전하고 공고하게 만든다. 자리가 안전하고 공고해질수록 여성의 자기감은 높아지고, 활동의 성과도 더욱 향상될 것이다. 이것은 부도의 감정노동적 요소 중 내면행위로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다.

반면 아내의 직역으로 요구되는 부도에는 또 다른 층위가 존재한다. 그것은 가난보다 감당하기 어려운, 남편의 '희첩을 참는 것'이다. 조선시대 '희첩 참기'는 '이비 신화'를 통해 합리화되었다. 중국 신화시대의 임금 순이 요임금의 두 딸인 아황과 여영을 부인으로 맞았는데, 두 여인이 갈등 없이 '한 남자'에게 순종했다는 '신화'는 조선시대에 매우 강력한 힘을 지닌 서사였다. 원래 '이비'는 중국 상강에 살던 두 명의 여신인데, 아황 여영 고사는 상강 이비의 이야기가 가부장적 시각에서 각색된 것이다. 그럼에도 남성은 그것을 불변의 '진실'이자 절대적 '진리'로 높이고, 여성의 삶

실노 원치 아니ᄒᆞ는 ᄇᆡ로ᄃᆡ 두려ᄒᆞ는 바는, 군ᄌᆡ 타일 ᄯᅳᆺ을 으더 작쳡의 마음이 편치 못ᄒᆞ고 일을 ᄒᆞ실가 심녀ᄒᆞ나니 오직 부귀ᄒᆞᆫ 후 ᄯᅳᆺ을 고치지 마르시고 죵신토록 희쳡을 가초지 아니시기를 바라나이다."

을 '이비 신화'에 맞추도록 강요하였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이것은 생각만 해도 불안하고 불쾌한 일이다. '이비 신화'의 수행은 육체적 측면보다 감정적 희생을 더욱 크게 요구하며 쉽게 내면화하기도 어려워서, 이행을 한다 해도 표면행위일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이것의 수행에서 획득되는 인정은 최선의 단계가 '현상유지' 이다. 커다란 감정의 희생과 인내의 대가는 '지금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자리 유지를 위한 희생은 그 직역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생존을 위한 전략일 뿐이다. 일의 성격이 '생존형'으로 축소되면 노동 당사자의 자기감은 쉽게 상실된다. 이른바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없이 참아야 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생존전략으로서의 직역은 자기감 확대와 인정욕망의 충족으로 이어지기가 어렵다. 때문에 '한 명의 희첩'이 '백 년의 가난'보다 견디기 두려운 일인 것이다.

> ⑤두 말이 다 묘맥이 있음을 알아 평생 믿었던 마음이 허사가 되니, 급한 뇌정이 두상의 임한 듯 신색이 저상하여 이윽히 말이 없거늘, 광무가 재삼 개유하고 풀어 이르기를, "여자가 은근 정숙함이 덕이라" 하니, 곽씨 보리밥을 박차 냇물에 엎지르고 눈물 흘림을 마지아니하니, 광무가 그 투협함을 개탄하여 혀를 차며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봉황이 오작을 낳았구나." 하시니 이는 장모를 닮지 않았다고 한 것이다. … 일일은 광무의 주머니 가운데 거륵한 빛이 있음을 보고 보여 달라 청하였는데, 광무가 천연하게 끌러 주며 받아 열어보니, □□□□□□옥환 한 짝이 들어있으니 마음이 □□□□□□□□을 보고 가슴 가운데 작은 원숭이가 뛰노는 듯하니 수족을 떠는 중에, 옥환 빛이 방안에 조요하고 이목이 황홀하니 스스로 어린 듯하더라.[24]

24) 「옥환기봉」, 규장각본, 권1, "두 말이 다 묘믹이 잇시믈 아라 평싱 밋든 마음이 허식리니, 급흔 뇌졍이 두상의 님흔 듯 신식이 져상ᄒᆞ여 니윽히 말이 업거ᄂᆞᆯ, 광뮈 지숨 기유ᄒᆞ고 프러 닐오ᄃᆡ 녀지 은슉ᄒᆞ미 덕이라 ᄒᆞ니, 곽시 믹반을 박ᄎᆞ 닉물의 업치고 눈물 흘니믈 마지 아니ᄒᆞ니, 광뮈 그 투협ᄒᆞ믈 기탄ᄒᆞ여 혀ᄎᆞ며 몸 니러 왈, 봉황이 오작을 나토다 ᄒᆞ시니 이ᄂᆞᆫ 빙모(聘母)를 답지아니ᄒᆞ시미러라. 곽시 광무의 말ᄉᆞᆷ을 의심ᄒᆞ여 다시 뭇고ᄌᆞ 믹양 존쾌 ᄒᆞᆫ 방의 이시니 온휘치 못ᄒᆞᆯ 분 아냐 이후ᄂᆞᆫ 광무를 의심ᄒᆞ여 믈읫 거취ᄅᆞᆯ 무심이 보미 업시나 … 일일은 광무의 쥼

⑥곽씨가 말했다. "군자가 만일 첩의 깊은 근심을 풀어주려 하실진대, 경각에 있습니다." 광무가 말했다. "무슨 일이오? 생이 그대 말을 좇음이 있으리라." 곽씨가 말했다. "이는 군자의 장중지물이니 옥환을 생각하면 첩의 마음이 자연 한축(寒縮)하고 담이 떨리니 옥환을 첩에게 주시면 직접 보아 신기를 편안히 하고 근심이 풀려 숙식이 달고 화기가 온전하여 천연을 다할 것입니다." 광무가 웃으며 말했다. "부인은 진실로 속 좁게 질투하는 사람이로다. 차물(此物)이 없어도 이 사람이 있으면 천연을 인력(人力)으로 못할 것이오. 즉 스스로 역량(力量)을 길러 부덕을 삼가면 희년과 숙년을 화동할 것이지만 투협하면 장부지심이 한번 변하면 얻을 것이 없으니 뉘우쳐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곽씨가 대로 대한하여 애처롭게 우니 광무가 개유하다가 못하여 소매를 떨쳐 나가며 말했다. "적국이 오기도 전에 저렇게 투기함은 고금에 듣지 못한 바이니, 그대의 위인이 진실로 나의 배위 아닌가 하니 숙녀를 어디서 구하리오."[25]

곽씨는 남편 광무에게 훗날 부귀하게 되어도 희첩을 얻지 말라고 부탁한다. 그러자 광무는 며칠 전에 허씨와 관계했던 사연을 전하며 앞으로는

치 가온ᄃᆡ 거록ᄒᆞᆫ 빗치 니시믈 보고 보기ᄅᆞᆯ 구ᄒᆞᆫᄃᆡ, 광뮈 촌연이 글너 쥬며 바다 열어본즉,□□□□□□□옥환 ᄒᆞᆫ즉이 드러시니 마음이 □□□□□□□□□믈 보고 가ᄉᆞᆷ가온ᄃᆡ 젹은 잣남비 쒸노니 슈쵹을 쩌ᄂᆞᆫ ᄀᆞᆺ, 옥환 빗치 실즁의 조요ᄒᆞ고 이목이 활홀ᄒᆞ니 스ᄉᆞ로 어린 듯ᄒᆞ더라."

25) 「옥환기봉」, 규장각본, 권4, "곽시 왈, 군ᄌᆡ 만일 쳡의 은우를 풀ᄌᆞ고 ᄒᆞ실진ᄃᆡ, 경ᄀᆡ의 잇나니다. 광뮈 왈, 무ᄉᆞᆷ일이요 ᄉᆡᆼ이 그ᄃᆡ말을 조츠미 이시리라. 곽시 왈, 이는 군ᄌᆞ의 장즁지물이니 옥환을 ᄉᆡᆼ각ᄒᆞᆫ작 쳡심이 자연 한츅(寒縮)ᄒᆞ고 담이 썰이니 옥환을 쳡를 쥬시면 친이 보아 신긔를 편이ᄒᆞ고 근심이 풀여 숙식이 달고 화긔 오젼ᄒᆞ여 쳔연을 다ᄒᆞ리로소이다. 광뮈 소왈, 부인는 진실노 투협인니로다. ᄎᆞ물(此物)리 업셔도 이 ᄉᆞ람곳 잇시면 쳔연를 인역(人力)으로 못ᄒᆞ리이오. 즉 스ᄉᆞ로 역양(力量)를 길너 부덕을 ᄉᆞᆷ간즉 희년과 슉년를 화동ᄒᆞ련이와 투협ᄒᆞᆫ 즉 장부지심이 한번 변ᄒᆞ면 어들거시 업슨이 뉘웃쳐도 밋지 못ᄒᆞ리라. 곽시 대로 ᄃᆡ한ᄒᆞ여 ᄒᆞ야 쳐읍ᄒᆞ니 광뮈 ᄀᆡ유ᄒᆞ다가 못ᄒᆞ여 ᄉᆞᄆᆡ를 썰쳐 나가며 왈, 젹국이 일으지아야 저러 투기ᄒᆞᆷ믄 고곰의 돗지 못ᄒᆞ미니, 그ᄃᆡ 위인이 진실노 나의 ᄇᆡ위 아니리어이 숙녀를 어듸 구ᄒᆞ리요 ᄒᆞ더라."

조심하겠으나 허씨가 자신에 대한 절의를 끝까지 지키면 그때는 상황을 보아 결정하겠다고 말한다. 이 말에 거친 밭일에도 약해지지 않던 곽씨의 마음이 한 순간에 무너진다. 거센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인 것이다. 이러한 반응에 광무의 태도는 비정하다. 육체노동에서 손이 부르트면 손을 잡아 주었을 광무지만, 정신노동의 호소에 대해서는 도리어 '여자는 은근하고 정숙한 것이 덕'이라고 책망어린 말을 한다. 이는 '거친 일에도 손이 부르트지 않는 것이 덕'이라는 말과 같다. 즉 '부도'의 두 층위에 대해 남성과 남편의 인정 기준은 전혀 다른 것이다. 광무의 말은 정신노동에 대한 요구가 더욱 혹독함을 드러낸다. 곽씨가 정신적 부르틈을 호소한 것에 '역량을 기르고 부덕을 삼가라' 하니, 이 말 한 마디에 곽씨는 부덕 없는 여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곽씨가 육체노동과 경제활동으로 증명한 '자질과 부덕'이 일거에 부정되는 것이다. 곽씨가 서운하여 보리밥을 엎지르고 눈물을 흘리자, 광무는 '봉황이 오작을 낳았다'고 비난한다. 이제 곽씨의 공로는 사라지고, 그녀는 단지 까막까치 정도의 부덕하고 편협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무엇보다 곽씨에게 강요된 감정희생은 곽씨가 자신의 부단한 노동과 경제활동으로 굳건히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자리'가 위태하고 불완전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직역에 충실해야 함을 자각하게 했다. 광무는 전쟁 중에 자기를 대신해 가족을 돌보며 피난을 다닌 곽씨에게 "오직 내 마음은 천상옥제가 월궁부인을 보낼지라도 당당히 그대를 버릴 뜻이 없으니"라고 다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어 "행여 생이 성취 현달하면 부인이 덕을 일워 □□□□□ □□□□□ 한 가지로 하기를 바라노라."[26]라고 하여 훗날 맞이할 다른 여성을 너그럽게 품는 것이 부인의 덕이라고 첨언했다. 이 말은 희첩을 품는 부덕이 없으면, '함께' 지낼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

26) 「옥환기봉」, 규장각본, 권4, "오직 ᄂᆡ 마음은 쳔상옥졔 월궁부인을 보ᄂᆡ실지라도 당당히 그ᄃᆡ를 버릴 ᄯᅳᆺ지 업나니, 힝여 ᄉᆡᆼ이 셩취 현달ᄒᆞ고 부인이 부덕을 닐워 □□□□□ □□□□□ ᄒᆞᆫ가지로ᄒᆞ믈 바라노라."

한 부덕이라는 이름의 감정적 직역이 매번 '제로'에서 시작한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요구받은 감정을 성공적으로 내면화한다 해도 대가는 '자신의 현재 자리'를 공유하는, 여전히 불안한 균형 잡기이다. 반면 내면화에 실패하면 바로 '자리'에서 쫓겨나는 불명예를 감당해야 한다. '희첩 참기'로 대표되는, '이비 신화'와 관련한 감정노동에 수반되는, 내면과 다른 감정의 표출이라는 직무는 이행 여부에 대한 대가가 이처럼 위협적이고 폭력적이다. 이것은 사회적 규범이라는 이름으로 조직 차원에서 강요되는 것이고, 고통의 토로 자체가 부덕한 것으로 비난받는 일이기에 공감과 이해조차 얻기 어렵다. 언제나 곽씨의 부덕을 칭찬하던 시어머니 범부인마저 아들의 취첩에 대해서는 곽씨에게 '화평을 취할 것'을 요구하며, '분을 참고' '조심히 근신'하기를 강요하는데, 이는 사회적 차원에서 통용되는 감정노동 규범이 존재함을 말한다. 범부인은 곽씨에게 내면과 다른 감정과 행위를 표현하라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일의 효행이 다 무너지고 신세가 위태해질 것"이기 때문이다.[27]

여성의 감정 직무는 특성상 내면화 자체도 어렵지만, 내면화에 성공했을 때마저도 긍정적인 노동과 활동의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기감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차단된 노동과 활동이며, 자신의 존재가치를 상실하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평소 자존감 높던 곽씨가 감정노동 요구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옥환' 한 짝에 가슴이 놀라고 손발이 떨릴 지경

27) 「옥환기봉」, 규장각본, 권5, "ᄋᆞ직 만일 호ᄉᆡᆨ무신으로 무단이 취ᄒᆞᆫ즉 ᄂᆡ 엇지 금치 못ᄒᆞ리오 마는 진실노 쳔연이라 일역으로 못ᄒᆞᆯ비오. ᄒᆞ물며 ᄋᆞᄌᆞ의 긔상이 ᄒᆞᆫ부인을 잇지 아니리이 쳔연 불취면 반슈기앙이라ᄒᆞ니, 비록 음시를 물이치나 다른 음시 업슬쥴 어이 알니오. 찰하리 화평을 취ᄒᆞ고 졔 또 ᄉᆞ족 부네니 ᄒᆞᆫ가지로 화목ᄒᆞ여 교홰 인국의 밋ᄎᆞ면 또ᄒᆞᆫ 아름답지 아니랴. 현뷔 쳥쳥긔졀ᄒᆞᆫ 인품이나 본ᄃᆡ 통치 못ᄒᆞᆫ ᄉᆞ람니이 투긔ᄂᆞᆫ 부덕의 경계라. 잉분ᄒᆞ미 웃쯤이오, ᄂᆡ 비록 현부를 ᄋᆡ듭ᄒᆞ고 졔일의 친이ᄒᆞ미 금슬이 화락ᄒᆞ고 공이 듭ᄒᆞ나, 현뷔 만일 튀긔를 방ᄌᆞ히ᄒᆞ여 덕힝을 상히온즉, ᄂᆡ 능히 구키 어렵고 슉뮈 뜻이 셔지 못ᄒᆞ리니 장뷔 마음이 변ᄒᆞ여 일마다 유감ᄒᆞ면 젼일 효힝이 다 문허지고 신셰 위틱ᄒᆞ여 스ᄉᆞ로 몬져 그른 ᄉᆞᄅᆞᆷ이 아니랴. 만일 소심근신ᄒᆞ여 덕을 길너 스ᄉᆞ로 손상치 아니면 아직 또 방탕ᄒᆞᆫ ᄉᆞᄅᆞᆷ이 아니라. 우리 고부 ᄉᆞ이는 ᄉᆞᄅᆞᆷ이 감히 ᄉᆞ히지 못ᄒᆞ리니, 현뷔 형셰를 ᄂᆡ 능히 당거ᄒᆞ리오. 도로혀 존즁ᄒᆞᆫ 위의 체체ᄒᆞ리라"

이 되는 것은, 아내가 감당해야 하는 감정적 직역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인지 보여준다. 곽씨는 광무에게 옥환을 달라고 청하지만, 광무는 다시 한 번 곽씨를 속 좁게 질투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한다. 그리고 곽씨가 역량을 길러 부덕을 삼가면 일생을 함께 할 것이지만, 투기를 하면 자신의 마음이 변하여 후회해도 소용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위협을 한다. 심지어 곽씨에게 자신의 배우자 자격이 없다고 하니, '아내 자격'이 생존 근거가 되는 여성에게 내면과 다른 감정과 태도를 강제하는 것은 매우 수치스런 일이라 하겠다. 이에 대해 곽씨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이 시댁과 황실의 부흥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소리 높여 외치는데, 이러한 외침은 곽씨가 요구받은 '이비 신화'와 관련한 감정노동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동조의 목소리를 불러 모으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3. 서사적 미러링을 통한 '여성-자기서사'의 공유 시도, 「한조삼성기봉」

조선시대 '아내'라는 직역에 요구되는 노동은 크게 경제적 측면과 비경제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여성은 희생적 돌봄을 통해 빈천한 집안을 지탱하고 남성의 청렴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 주체로 노동하지만, 동시에 노동 수행 과정에서 감성 통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노동과 관련하여 조직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행위 규칙이라는 점에서 감성 통제는 감정노동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한편으로 경제적 측면의 감정노동은 성과의 가시화가 가능하고 그 수행 여부에 따라 공식적이고 사회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그로인해 여성의 지위가 공고해지고, 자기감을 높일 수 있는 통로로 작용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여성들은 스스로를 감성통제의 대상에서 통제를 선택하는 주체로 내면화하기도 한다. 이러한 '선택'은 노동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내면 활동'적 감정노동이라 볼 수 있다.

반면 감정노동이 주가 되는 여성의 비경제적 가사활동은 '자아 확장'과

'자기감 고양'의 기회로 연결되기 어렵다. 희첩 참기로 대표되는 아내의 직무는, 여성이 자신의 감정에 반하는 감정과 표현을 억지로 수행해야 하는 일이다. 고통스런 진심을 '화평한' 표정으로 감추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요구받은 행위규칙을 훌륭하게 수행한 경우에 주어지는 대가가 현상유지나 자리보전이라는 점에서 생존형 임무이다. 만약 부당함에 대한 판단이나, 그에 따른 내면 상태를 솔직히 드러낸다면 남성과 조직은 그동안 여성이 이룬 가시적 성과까지 모두 허사로 매도해버린다. 거기에 공식적 언어로 여성을 부덕하고 자질이 떨어지는 인물이라고 비난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존재 가치를 떨어뜨린다. 이 경우 여성은 자신의 지위와 생존 기반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고 자기감을 상실하게 된다. 여성들이 '백 년의 가난'을 '한 명의 희첩 참기'보다 더욱 행복한 일로 여기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조선의 여성들은 소설이라는 비공식 장르를 통해 공식적 영역에서는 표현도 할 수 없고, 공감도 끌어내기 어려운 자신들의 고된 직역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보았듯, '아내'라는 직역에 가해지는 노동의 부당함에 대한 공론화를 꾀하였던 「옥환기봉」이 대표적이다. 실제 조선시대 여성들은 자신을 수동적인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남성의 시선과 언어에 대하여, 자신들의 시선과 언어로 '말'함으로써 자신들 또한 마주하는 시선이자 대화하는 주체임을 지속적으로 드러내었다. 이때 중요한 수단이 '국문소설'이었다. 남성이 '한문과 실기'로 세상의 목소리를 일원화하려고 할 때, 여성은 '국문과 소설'로 갇혀진 목소리들을 소환한 것이다. 조선의 여성들은 소설이라는 공간에서 자신들이 처한 노동과 생활 환경에 문제를 제기하고 공유할 뿐 아니라,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문소설은 여성들에게 비공식적이지만 적극적인 소통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했던 것이다.

국문소설은 창작뿐 아니라 전사와 개작의 방식으로 독서되며 여성 중심 향유층의 의견을 유통시키는, 하나의 '움직이는 커뮤니티'로 기능하였다.[28] 커뮤니티로서의 소설은 향유 구성원 간의 의미 공유를 통해 생명

력을 유지하였는데, 현존하는 전사본의 양과 개작 정도 및 속편의 창작은 향유자들이 작품서사를 활발하게 공유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국문소설의 커뮤니티적 생명력이 왕성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동일한 서사에 대한 재해석과 개작을 바탕으로 한 속편의 창작은 남성중심 시각에서 보았던 규범을 여성의 시선으로 재조명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재평가를 제안한다. 여성은 소설적 서사의 재창조와 재해석을 통해, 삶과 현실의 서사를 새롭게 선택하는 것이다. 여성이 소설적이고 대안적인 상상력을 지지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자신의 삶을 직접 선택하고 재구성하려는 욕망을 구현하려는 일이다. 이는 또한 스스로 세상의 규칙을 제정하는 주체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실현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녀들은 소설적 커뮤니티를 통해 사회가 여성을 남성/조직이 만든 규범의 순응자로 정의하고 바라보는 것을 거절하고, 스스로를 규범을 만들고 삶을 창조하는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자기감을 높이기를 상호 독려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소설적 '여성-자기서사'를 소설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녀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목소리 즉 여성-자기서사를 남성과 사회가 경청하고 공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옥환기봉」의 파생작 「한조삼성기봉」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품이다.[29] 입장 차이에 대한 경청을 요구하고 공감을 독려하기 위해, '서사적 미러링'이라는 매우 적극적이고 신선한 비틀기를 시도하

28) 에티엔느 웽거 등은 '움직이는 커뮤니티(community of practice)' 모형을 통해 "동일한 관심사와 일련의 문제, 어떤 주제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보다 깊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집단"이 창출하는 힘을 주장했다. 에티엔느 웽거 외, 황숙경 역, 『COP 혁명』, 물푸레, 2004; 윤혜린, 「여성주의의 사회적 파워를 위한 리더십 모형」, 『여성주의 리더십』, 이대출판부, 2007, 24~25쪽에서 재인용. 조선의 국문소설은 오늘날 여성들의 커뮤니티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29) 임치균은 두 작품을 파생작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임치균, 「「한조삼성기봉」 연구」, 『정신문화연구』 26(3), 2003, 3~30쪽. 임치균은 두 작품의 관계를 '뒤집어 보기'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작가의 주제의식이 이는 구조적/인물배치의 뒤집기에 주목하여 '역사적 성격의 소설을 허구적 소설로, 미진한 인연을 보완하려는 윤회의 의도가 곽후의 설원을 위한 윤회로 바뀐 '파생작'임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고 있기 때문이다. 「한조삼성기봉」은 「옥환기봉」의 인물들이 그대로 다시 태어나 전생의 관계를 이어가도록 설정한 작품이다. '차이의 반복'을 보여주는 이 작품은, 구조나 사건의 진행은 전작과 거의 유사하다. 전생의 남녀 주인공이 성별을 바꾸어 태어났다는 점과 혼인과 부부 문제의 비중이 강화된 점이 다를 뿐이다. 「옥환기봉」에서 부부였던 곽씨와 광무는, 「한조삼성기봉」에서 강왕(곽씨)과 조수아(광무)로 태어나 다시 부부가 된다. 「한조삼성기봉」은 서사적 미러링을 통해 전작에 대화걸기, 질문하기, 논쟁하기를 시도하는데, 이러한 미러링을 제안한 것은 바로 전작의 여성 주인공 곽씨이다.

「옥환기봉」 초반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곽씨는 한나라 무제 때 왕자를 낳고도 공손비에게 남편의 사랑을 빼앗겨 쫓겨났다가, 다시 후한 광무제의 비로 태어나 인연을 이어간 인물이다. 그녀는 초반 국가 재건 시에 광무제와 함께 고생했음에도 후일에 음씨를 총애한 광무에게 쫓겨났다. 이렇게 두 번이나 자기의 직무를 다했음에도, 부당하게 '투기'라는 혐의로 자기자리를 빼앗긴 그녀는 옥황상제에게 복수의 기회를 달라며 이렇게 말한다. "원래 유수의 집안은 동기가 많고 빈한한데 비하여 신첩의 집안은 왕실을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부유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늘이 정한 인연에 매여 빈한한 유수에게 시집을 갔던 것입니다. 세 칸 초가집에서 뽕을 심고 보리죽이라도 쑤며, 남편의 뜻을 따르고 아주버니와 시누이를 공경하며 시부모를 봉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친정 집안의 재산으로 남편이 천하를 도모하게 하였으니, 비록 천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첩이 내조한 공덕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어려움을 함께한 신첩을 후에 헌신짝처럼 버리니 신첩의 억울함과 원통함이 어찌 뼈에 사무치지 않겠습니까? 인간 세상으로의 윤회는 실로 기쁘지 아니합니다. 하오나 이번 윤회에는 음양을 바꾸어 신첩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되고, 저 유수는 여자가 되게 하여 복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30]

30) 「한조삼성기봉」 장서각본 권1, "뉴가는 빈한ᄒᆞ딕 동긔 만코 신쳡은 부귀호치로 존귀ᄒᆞ미 황녀를 블워 아닐 거시로딕 텬연이 ᄆᆡ인 고로 인력이 밋지 못ᄒᆞ와 빈한ᄒᆞᆫ

곽씨의 발원으로 시작된 광무의 여성 체험, 아내 체험기는 전작에서 곽씨가 보고 듣고 느낀 경험을 고스란히 반복한다. 미러링은 서사의 전체적 구조뿐 아니라 구체적 장면에서도 구현된다. 강왕(곽씨)이 왕비 조수아(광무)에게 설소저(음씨)를 맞이할 의사를 비치는 장면은 곽씨가 미러링을 선택한 이유를 잘 보여준다. 남편이 후첩을 두겠다는 말에, 조수아는 「옥환기봉」의 곽씨처럼 화난 기색을 역력히 드러낸다. 이에 강왕(곽씨)은 조수아(광무)에게 "자고로 남자가 새로운 여자를 밝히는 것은 인지상정이오. 필부도 부인 하나 첩 하나는 두는데 어찌 이렇게 투기를 과격히 하여 과인을 욕보이는가? 과인이 마땅히 태임과 태사 같은 성녀를 취하여 살림을 맡기고, 미인을 쌍쌍이 얻어 동서로 후궁을 정할 것이오. 그리고 투기 부리는 부인에게는 한나라 무제의 정비 진왕후가 투기로 사랑을 잃은 후 무제의 사랑을 되찾기 위하여 사마상여를 시켜 짓게 한 장문부를 읊게 하겠소. 그리하여 장부의 행사가 비 갠 뒤의 바람과 달처럼 맑고 깨끗함을 알게 할 것이오. 진실로 세상의 일은 알 수가 없는 것이오. 남자의 행동은 온화하다가도 갑자기 비바람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천지의 조화와 같소. 부부의 금실 또한 이러한 것이오."라며 꾸짖는다. 그리고 이어, "부인에게는 온순함이 으뜸이오, 이후로는 명심하고 남편의 뜻을 어기지 마시오. 장부가 한번 화를 내면 여자의 신세는 볼 것이 없으니 조심해야 하지 않겠소."[31]라며 위협하듯 말을 한다. 상황과 발화 내용이 전작의 「

뉴시 가문의 드러가오니 삼간모려의 쑥삼을 삼고 믹쥭을 거두어 가부를 슝슌ᄒᆞ고 슉민를 우공ᄒᆞ며 고모를 효봉ᄒᆞᆯ 졔 본부 지산을 기우려 텬하를 도모ᄒᆞ오니 비록 텬명이 잇다 ᄒᆞ오나 쳡의 닉조의 공덕인들 젹다 ᄒᆞ리오. 이러틋 간고를 ᄒᆞᆫ가지로 지닉다가 나종의 져ᄇᆞ리믈 헌신 ᄀᆞᆺ치 ᄒᆞ오니 신쳡의 원억ᄒᆞ미 엇지 범연ᄒᆞ리잇고? 인간 윤회의 참예ᄒᆞ오미 실노 깃부지 아니ᄒᆞ오나 구ᄎᆞ이 녀지 되지 말고 남지 되야 져로 녀지 되며 음양을 밧고와 보원홈을 ᄇᆞ라나이다." 임치균 외 교주, 『한조삼셩긔봉』,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23~24쪽.

31) 「한조삼성기봉」, 장서각본, 권3, "ᄌᆞ고로 남ᄌᆞ호신은 인지상애오 일쳐일쳡은 필부도 잇ᄂᆞᆫ ᄇᆡ어ᄂᆞᆯ 엇지 이ᄃᆡ도록 투한 과격ᄒᆞ야 과인을 쳠욕ᄒᆞᄂᆞ뇨. 과인이 맛당이 임사 ᄀᆞᆺ튼 셩녀를 취ᄒᆞ야 즁궤를 젼일히 ᄒᆞ고 버거 가인을 빵빵이 갓초와 동셔후궁을 졍ᄒᆞ고 투악ᄒᆞᆫ 부인으로 장문부를 읊프게 ᄒᆞ야 장부의 힝ᄉᆡ 광풍졔월 ᄀᆞᆺᄐᆞ믈 알게 ᄒᆞ리니 진실노 셰ᄉᆞ를 아지 못ᄒᆞ리라. 남ᄌᆞ의 조홰 텬지조화 ᄀᆞᆺᄐᆞ니 비록

옥환기봉」에서 광무가 곽씨에게 하던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한조삼성기봉」은 광무와 곽씨의 성별과 직역이 달라진 것을 제외하면, 주제적 측면에서는 「옥환기봉」과 크게 다르지 않다. 때문에 기존연구에서는 이 작품이 곽씨 즉 여성의 입장에서 쓰였으며, 여성담론을 시도하지만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제공하는 규범을 반복 언술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임을 지적했던 것이다.[32] 서사만 보면 「한조삼성기봉」의 결론은 조수아라는 여성 즉 아내가 자신의 직역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작품은 전작의 곽씨에게 그러했듯, 조수아가 감당할 직역 중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남편의 취처나 취첩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임무의 수행 과정에서 조수아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감정과 행동을 강요받게 하였다. 그것을 내면화 하지 못할 때 그녀는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날 위협에 놓이며, 내면화에 성공한다 해도 결과는 '자리 보전'일 뿐이다. 전작에서 곽씨에게 아내의 '부덕'을 강조했던 광무(조수아)가 이제는 여성의 혹독한 감정노동을 감내해야 하는 생존 서사를 자기서사화 하고 있는 것이다. 조수아도 이제는 자기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게 된다. 무엇보다, 그러한 감정 직역을 이행하지 않을 때 자신의 모든 존재가치를 부정당하는, 자기감의 상실도 경험하게 된다. 때문에 초반의 높았던 목소리는 낮아지고, 규범의 순응자로 자신을 포기하는 듯 보인다. 이로 인해 「한조삼성기봉」을 '원본'의 반복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조삼성기봉」이 「옥환기봉」의 서사적 미러링이라는 점을 고려하며 읽으면 작품에 대한 이해는 달라질 수 있다. 조수아를 핍박하는 강왕의 언술이 남성의 언술로만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강왕(곽씨)의 말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억압적 발화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말에는 똑같

온화ᄒᆞ다가도 블측한 풍운뇌졍이 잇ᄂᆞ니 부부의 금슬이 ᄯᅩᄒᆞᆫ 이러ᄒᆞᆫ지라.…부인은 온슌ᄒᆞᆷ이 웃듬이니 이후ᄂᆞᆫ 경심계지 ᄒᆞ야 쇼텬의 ᄯᅳᆺ을 어긔지 말나. 가뷔 ᄒᆞᆫ번 노ᄒᆞ면 녀ᄌᆞ의 신셰ᄂᆞᆫ 볼거시 업ᄂᆞ니 조심치 아니리오."; 임치균・임정지 역, 『한조삼성기봉』,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3, 108~109쪽; 임치균 외 교주, 『한조삼셩긔봉』,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3, 115~116쪽.

32) 이승복, 앞의 글; 임치균, 앞의 글.

은 말을 들었던 여성의 조소어린 반격의 목소리가 겹쳐있다. 조수아(광무)의 불만과 불안과 발악 또한 애처로운 여인의 호소인 동시에, 동일한 말을 내뱉었던 남성의 모순적 주장을 폭로한다. 겹쳐진 목소리를 듣는 이 소설의 독자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이는 오늘날 가모장 혹은 걸크러쉬라는 용어의 유행과 그러한 성격의 여성 예능인 캐릭터에 열광하는 많은 주부들의 환호에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고민할 것은 이러한 환호가 전달하는 메시지이다. 작가는 이중적 목소리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게 하는 미러링을 통해 무엇을 의도하고 있을까? 여성이 겪었던 상황을 남성이 고스란히 반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의 해명은 곽씨의 복수가 의도한 바, 그리고 「한조삼성기봉」의 작가가 전작인 「옥환기봉」에 건네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한조삼성기봉」은 광무에 대한 곽후의 복수가 동기가 되어 동일한 상황의 반복을 시도한다. 그러나 이러한 반복은 단순히 대결과 충돌 그 자체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 대결과 충돌은 다른 듯 보이지만 결국은 다시 하나의 시각으로 수렴되는, 그것이 여성적이든 남성적이든 이분법적으로 나뉜 세계의 반쪽만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한조삼성기봉」이 제시하는 대안은 현실적으로 성공이 불가능한 '공상'일 뿐이다. 그러나 「한조삼성기봉」의 미러링은 원본을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이어가는' 삶을 제안한다. 곽씨는 광무가 자신에게 부과했던 직역을 그에게 그대로 제공하며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것은 동일한 경험의 '공유'를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각과 입장의 '공유'는 매우 커다란 변화이다. 특히 자기서사의 공유는 새로운 삶의 설계를 위한 출발점을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곽씨의 발원은 광무가 여성과 아내의 직무 규범, 이비 신화가 지배하는 여성의 자기서사가 얼마나 부당하고 견디기 어려운 것인지를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곽씨의 바람대로, 조수아가 되어 곽씨의 인생을 고스란히 자기서사로 받아들인 광무는 아내로서 견뎌야하는 감정적 노역이 육체적 고난보다 어려운 일임을 토로하게 된다. 황실을 위기에 몰아넣은 간

인들을 처단하는 과정에서 공을 세운 위씨를 자신과 동렬에 봉하며, 황제는 며느리 조수아에게 위씨와 친형제처럼 지내라고 한다. 그러자, "조수아는 마음속으로 분하고 화가 났으나 지엄하신 분들의 안전에서 감히 투기하는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억지로 화한 빛을 띠고 놀란 기러기 모양으로 꿇어앉아 두 번 절하고 가르침을 받았다. 하지만 얼굴빛에는 분한 마음을 어쩌지 못하여 두 뺨이 붉어지고 구슬 같은 땀이 흘렀다. 임금과 왕후가 그 속마음은 모르고 다만 몸이 불편한가 염려하여 궁녀로 하여금 부축하여 물러가 쉬게 하였다."(231면, 권6) 조수아(광무)가 자신의 마음과 달리, 억지로 '화한 빛을 띠어야 하는 상황'은 전생에서 광무가 곽씨에게 요구했던 '부덕'의 핵심이다. 광무는 아내라는 이유로, 자신의 감정을 속이고, 그와 반대되는 감정/행위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를 조수아가 되어서야 비로소 절감하는 것이다. 조수아(광무)는 "나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것보다는 차라리 베옷을 입은 궁벽한 선비의 아내가 되어 보리밥과 푸성귀 반찬에 만족하고 나무뿌리와 고사리를 캐며 살기를 항상 원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마음이 번잡한 것이다. 억지로 아닌 척하고자 하나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이 모든 것이 하늘이 정한 운명이다. 나는 이제 분하고 원통하여 죽을 것 같다."(241면, 권6)라고 비통해하는데, 이것이 바로 곽씨가 말했던 '백 년의 가난'보다 더 괴로운 '희첩 참기'라는 직무의 고통인 것이다.

「한조삼성기봉」은 조수아(광무)로 하여금 곽씨와 동일한 경험, 즉 같은 인생의 서사를 갖게 하였다. 인생의 서사는 한 사람이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것을 문학치료학에서는 '자기서사'라고 부른다. 자기서사를 공유하는 것은 상대를 이해하는 방법이고, 공감을 통해 상대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방식이다. 자기서사의 공유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자기감의 고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서사는 코헛이 말한 '자기'의 개념과 유사하다. '자기'는 마음속에 존재하는 구조로서[33] '자기'가 긍정적 확장을 이룰 때 자기감이 고양된다. 노동은 인간이 자기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감을 떨어뜨리는 데

참여하기도 한다. 자신이 맡은 일에서 성과를 낼 때 자기감이 향상되며, 직무에서 무능하다는 평을 받으면 자기감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내에게 부과된 감정적 직무는 성공적으로 이행을 해도 현상유지일 뿐 자기감을 높이는 쪽으로 기여하지 못한다. 오히려 대부분이 자신의 감정에 반하는, 굴욕적인 방식을 요구하기에 이것을 거절할 경우 그 직역을 해낼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비난으로 이어지기 쉽다.

특히 사회 전체가 그러한 직역을 '규범'과 '부덕'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는 경우는, 스스로도 자신을 부덕이 없는 인물로 자책하게 된다. 규범이나 부덕이라는 명명은 이름 자체만으로도 정당함과 옳음이라는 권위를 부여받기 때문이다. 조선은 '이비 신화'를 통해 여성의 감정노동을 합리화한 사회였다. 유교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조선의 남성들은 각색된 신화를 '진실'과 '진리'의 자리에 올리고, 여성의 자기서사를 '이비 신화'에 맞추도록 강요하였다. '이비 신화'는 조선의 많은 여인들이 따라야할 삶의 방향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절대적 권위가 되어버린 이비의 서사를 자기서사로 수용하는 것을 거절하는 일은 주체적 선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여성 스스로도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지니기 어렵게 된다. 만약 '규범'이 선택 가능한 것이라는 인식이 공유된다면 강요된 여성-자기서사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자신의 존재가 부정되는 상처의 서사적 회복을 가져올 것이다.

아내와 여성의 노동은 보살핌과 돌봄의 속성을 지니고, 그 대가는 가족과 사회의 인정으로 돌아온다. 노동에 대한 가치 인정은 아내와 가모라는 자리의 공고함과 연결되고, 인정의 범위도 가정에서 사회로 확대 가능하다. 공고함의 강화 정도, 인정 범위의 확대 정도는 여성의 자기감 강화 정도와 연결된다. 그러나 여성과 아내의 직역으로 강조된 것 가운데, 충효열과도 무관한 '이비(二妃) 신화'의 수행 요구는 가장 고되고 내면화가 어려운 감정노동이면서 동시에 수행 여부가 여성과 아내의 지위 박탈과

33) 앨렌 시걸, 권명수 역, 『하인즈 코헛과 자기심리학』,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106쪽.

축출이라는 위협을 내포한다. 그것은 자기감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생존적이고 치욕적인 직무이다. 이러한 아내의 직역에 대해 여인들은 그 부당함을 자신들의 말로 '언어화'했으며, 자신들의 돌봄이 자신들도 돌보기를 희망하였다. 적어도 부부 간에는 상호적 돌봄의 관계가 형성되어야함을 제안한 것이다. 부부 간 상호적 돌봄은 공감을 조건으로 하며, 공감은 서로가 서로의 자기서사를 공유함으로 가능해진다. 전통사회의 경우는 특히 남성이 여성-자기서사를 공유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상대의 마음속 구조인 자기 혹은 자기서사를 공유하려는 노력은 개인의 자기감과 존재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는 윤리적 삶에 대한 여성들의 바람이며, 자신들이 가사노동에서 보여주었던 돌봄의 정신이기도 한 것이다.

4. 나가며: 규범에서 노동으로, 시선 전환의 의미

「한조삼성기봉」이 「옥환기봉」을 서사적으로 미러링한 것은 궁극적으로 곽후의 '자기서사'를 광무가 공유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기서사의 공유는 공감을 목적으로 한 실천이다. 코헛은 '공감이 "(타인의 내면 체험과) 자기의 경험이 유사하다는 자각"이라고 했다.[34] 이러한 공감은 자기감의 고양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인간의 가치에 대한 발견의 노력이다. 그동안 남성/남편들은 자신들에 대한 무조건적 순종을 여성의 부덕이라 명명하였다. 주류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주장하였기에, 여성들도 다수는 무비판적으로 '부덕'을 조선시대의 절대적 사회규범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문장편소설은 서사 간 대화적 발화를 통해 여성들과 남성들 모두에 공감을 제안하는 일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남성작가가 여성의 '교화'를 위해 창작한 한문소설 <창선감의록>을 국문으로 개작한

34) 위의 책, 102쪽.

<화씨충효록>은 효와 절이라는 이념 앞에서 침묵하며 주어진 직역을 참고 견뎠던 여성과 아내의 감정을 일깨우고, 남편을 선택하고 자기 주장을 드러내는 인물을 창조함으로써 앞의 작품에서 '옳음'으로 내세운 규범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자는 물음을 던졌다.

이 글은 여성과 아내의 직무 중 '이비 신화'로 이름 할 수 있는 왜곡된 '부도 혹은 규범'의 문제에 주목하며, 이를 감정노동 차원에서 다룰 것을 제안하였다. 가부장적 '부도'에 대해 기존 연구들도 비판적 시선을 견지하였다. 남성/남편에 대한 여성/아내의 순종을 요구하는 규범의 폭력성과 억압성을 고발한 것이다. 그러한 비판의 다수는 '이비 신화'를 '규범', 즉 그 시대의 보편 가치로 '인정함'을 전제로 진행되었다. 규범의 권위를 인정하고 시작하는 논의는, '현재적 시각에서 볼 때 당시의 규범이 부당하다'는 차이의 '확인'을 넘어서기 어렵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개체들은 그러한 규범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대항할 경우 비참하게 매장되었던 '사실'을 증명하고 한숨을 짓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소설은 상상력을 빌려 '규범'이라는 권위 자체의 정당성에 질문을 던지고, 돌려보기를 통해 같은 질문을 가진 목소리를 규합한다. 국문소설이라는 비공식적 글쓰기는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숨기는 방식이었고, 그들이 숨긴 목소리는 자신을 열등한 존재로 대상화하는 시대의 '이성과 규범'에 대한 개별 주체의 '감정'을 드러낸다. 감정은 오랫동안 규범에 종속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때문에 감정의 발견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여전히 '감정'은 사적 맥락에서 다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계급이나 자본, 윤리 등과 무관한 감정은 불가능하다."[35] 이글에서 조선시대 여성과 아내의 직역을 감정노동의 문제로 보고자하는 것은 그녀들의 감정 발견 자체가 아니라, 발견한 감정을 사회적 맥락에 재배치하려는 시도이다.

조선시대 아내의 직무와 그에 수반하는 정서적 희생을 규범의 문제로

35) 김미현, 『번역 트러블』, 이화여대출판부, 2016, 19쪽.

다루는 것과 노동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어떠한 의미 차이를 만드는가? 정서의 희생을 규범의 문제로 볼 때, 그것의 이행은 개인의 자질론으로 귀결된다. 규범은 그것이 '신화'적 각색에 의한 것이라 해도, 주류와 다수의 지지를 받기에 필연적으로 정당성을 획득한다. 여성에게 요구되는 정서적 희생의 강요는 부당하지만 그 시대와 사회의 당연한 질서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은 필수적이고 의무적인 것이 된다. 그로 인해 규범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하거나 규범을 거절하고 규범에 저항하는 일은 무능력이나 자질 부족이라는 비판에 쉽게 노출되는 것이다. 남성의 취처/취첩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일은 '효열'과는 무관한 직무임에도 그것이 '규범'의 자리에 오르는 순간, 그것의 이행은 부덕을 갖춘 여인의 조건이 된다. 반대로 그것을 거절하거나 그것에 저항하는 것은 성질 사납게 투기하는 인성이라는 중대 결함을 지닌 여성임을 증거 하는 것이다. 때문에 규범과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개별자에 대한 선택의 가능성은 여전히 논의대상에 오르지 못하는, 해결불가능하고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내와 여성에게 부여된 직무가 규범 준수가 아니라 노동 이행이라고 바라본다면, 그것은 공공의 영역이 되기에 사회의 책임에 대한 논의로 논쟁의 좌표를 재설정할 수 있다. 이는 '이비 신화'에 복무하는 것이 당연직이 아닌 선택직이라는 점, 또한 그것이 개인 차원에서 감당해야 하는 의무의 영역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협업의 영역임을 주장할 수 있게 한다. 전통적 여성과 아내의 직무를 바라보는 시선은 오늘날 젠더화된 역할 고정 문제와 연결되기에 개인의 자질이 아닌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아내와 여성의 직무에 침윤된 감정노동 중 자기감의 확대가 차단된 표면행동에 주목하여 노동과 관련한 여성의 '현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상적 전망과 현실적 실천은 새로운 자기서사를 구축하는 두 날개이다. 소설적 상상력은 실존했던 익명 여성의 개인적 경험과 여성 집단의 사회적 역사가 결합된 것이다. 소수자와 열세자는 자신들이 살았고 살고 있는 역사와 현실에서 대

안 사회를 상상한다. 대안적 상상과 그것의 용기 있는 발화는 삶의 질을 바꾸는 변혁의 기본 조건이다. 여성을 통제 대상화했던 조선시대에 여성들이 제안했던 소설적 상상력을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신을 주변적 존재로 규정하고자 한 사회와 남성에게, 그녀들은 자기의 언어로 자기들의 감정을 드러내고 경청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세상이 부정하는 여성의 자기감을 스스로 높이는 과정이자 노력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그녀들이 소설적 상상력을 통해 제안하고 있는 '자기서사의 창조, 그것의 공유를 통한 공감, 공감을 통한 상호 돌봄의 관계 형성'이 당시는 물론 오늘날 여성들의 노동현실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옥환기봉」, 규장각본.

「한조삼성기봉」 장서각본.

『禮記』

『詩經』

이남규, 『수당집』, 고전번역원.

2. 단행본

김미현, 『번역 트러블』, 이화여대출판부, 2016, 19쪽.

윤혜린, 『여성주의 리더십』, 이대출판부, 2007, 24~25쪽.

앨렌 시걸, 권명수 역, 『하인즈 코헛과 자기심리학』,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102~106쪽.

앨리 러셀 혹실드, 이가람 역, 『감정노동』, 이매진, 2009, 17~21쪽.

3. 논문

강혜선, 「조선후기 사족 여성의 경제활동과 문학적 형상화」,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4, 189~219쪽.

구선정, 「「옥환기봉」의 인물 연구-역사인물의 소설적 재현」, 이화여대 박사논문, 2011, 1~138쪽.

김경미, 「조선후기 여성의 노동과 경제활동: 18-19세기 양반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8권 4호, 2012, 85~117쪽.

류태모 • 위희경 • 정현우, 「감정노동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감성리더십과 임파워먼트의 조절효과」, 『인적자원관리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2014, 435~460쪽.

이승복, 「「옥환기봉」 연작의 여성담론과 소설사적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1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283~322쪽.

이승복, 「「옥환기봉」의 역사수용 양상과 그 의미」, 『한국문학논총』 50, 한국문학회, 2008, 141~182쪽.

이승복, 「「옥환기봉」의 인물형상과 작가의식」, 『고전문학과 교육』 1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8, 463~499쪽.

이정옥, 「돌봄노동의 사회화와 감정노동」, 『사회과학논총』 제11집, 2012, 91~109쪽.

임치균, 「「옥환기봉」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18, 한국사상문화학회, 2002, 27~50쪽.

임치균, 「「한조삼성기봉」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26권 제3호 통권 92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3~30쪽.

임치균, 「18세기 고전소설의 역사수용 일 양상-「옥환기봉」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8, 한국고전연구학회, 2002, 131~162쪽.

임치균, 「사랑과 갈등에 대한 남성의 시각 뒤집어 보기: 「옥환기봉」과 한조삼성기본을 중심으로」, 『고전여성문학연구』 9, 고전여성문학회, 2004, 169~195쪽.

임치균, 「취미삼선록 연구-「옥환기봉」, 「한조삼성기봉」과의 대비를 중심으

로」,『고전문학연구』30, 한국고전문학회, 2006, 351~378쪽.
임형택,「17세기 규방소설의 성립과 <창선감의록>」,『동방학지』57, 1998, 103~176쪽.
최기숙,「18세기 여성의 생애사 기록을 통해 본 빈곤의 감성 통제와 여성의 삶」,『여성학연구』제32호, 2014, 7~42쪽.

Abstract

Women's Emotional Labor and "Two Good Queens Myth(二妃神話)" in Chosŏn

Kim, Soo-Youn

Shrugging off the conventional viewpoint that considers women's duty as a norm, we see it as a performance of labor. This view makes us regard women's duty as the problem of public domain, and discuss social responsibility of it. This claims that serving for 'Two Good Queens Myth' is not the official but the selective, and also is not the area of an individual duty but that of collaboration of community. The way looked at the duty of traditional women or wives, which is in line with the fixed role problems gendered today, should be reviewed as the problems of a social system, not that of a person's qualifications. Especially, in emotional labor permeated the duty of women and wives, paying attention to a surface behavior that the spread of their sense of identity is blocked, we need to try to understand the women's reality related with labor. Imaginative prospect and realistic practice is two wings that construct a new self-epic. Fictional imagination is the combination of personal experiences which a real anonymous woman made and a social history of a female group. Alternative imagination and courageous revelation is a basic condition for changing the quality of life. This is why this paper is focused on fictional imagination that women in Chosŏn dynasty where people controlled women has proposed. On the process of

discussion, we made use of 'mirroring' as a narrative skill, 'emotional labor' of sociology, 'the sense of identity' of self psychology, and 'self-epic' of literary therapy as important introspection tools.

Key words : Emotional Labor, Mirroring of Narration, “Two Good Queens Myth”, <Okhwan kibong(玉環奇逢)>, <Hancho Samsŏng kibong(漢朝三聖奇逢)>

■ 본 논문은 2016년 7월 12일에 접수되어 2016년 7월 20일부터 8월 4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6년 8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